

New Economic History의 方法論에 관한 研究 (其二)

姜 命 圭

<目 次>	
I. 問題의 提起	1. 研究方法
II. 傳統的 經濟史 研究方法의 諸問題點	2. 研究成果
III. 學說史의 素描(以上 第 XI 卷 第 1 號 掲載)	V. New Economic History 研究方法의 問題點과 批判
IV. New Economic History의 研究方法과 研究成果	VI. 結 論

IV. New Economic History의 研究方法과 研究成果

1. 研究方法

新經濟史의 性格을 究明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우선 이 새 研究方法이 果然 經濟史의 革命的 轉換이라고 할 만한 革新性을 가지고 있는지의 如否를 따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點에서 그러한 革新性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論해 보기로 하자.

먼저 新經濟史의 研究方法이 傳統的인 그것과 研究主題 또는 對象에 있어서 差異가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點에 있어서는 新經濟史家들의 主要關心이 經濟成長 내지 發展의 문제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舊來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關心領域을 보다 具體的으로 보면, 鐵道나 運河같은 交通網發達이 經濟發展에 미친 衝擊, 鐵工業成長에 대한 需要供給變動의 效果, 奴隸制度의 收益性, 農業生産性의 變動要因, 市場經濟創出에 대한 外國貿易의 影響, 工業化에 所要되는 資本源泉, 都市化의 문제, 그리고 經濟變動의 諸原因 등 그 어느 하나도 傳統的 經濟史家들의 對象이 아니었던 것이 없는 것이다.⁽¹⁾

(1) 問題領域別로 初期의 業績들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鐵道 및 運河가 經濟發展에 미친 衝擊을 다룬 古典的 研究: Albert Fishlow, *Railroad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Ante-Bellum Economy*, 1965; Robert A. Fogel, *Railroads and American Economic Growth: Essays in Econometric History*, 1964; Carter Goodrick and others, *Canals and American Economic Growth*, 1960.

그렇다면 新經濟史의 舊來의 그것과 다른 革新性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첫째로 指摘될 수 있는 것은, 計數의 情報에의 依存性이 높다는 點이다. 勿論 이러한 統計利用의 傾向은 이미 指摘됐드시 傳統의 方法에 있어서도 活用되어 왔었다는 點에서 보면 새로운 바가 없지만 그러나 在來의 計量的 方法에서는 標準의인 史料에서 發見되는 統計資料의 原形을 있는 그대로 提示함에 그치고, 「嚴格하게 定義된 經濟分析의 諸概念」을 밝힐 수 있도록⁽²⁾ 이 原初的 資料를 變形하는 일은 거의 없을 뿐더러, 거의 大部分이 直接的으로 測定할 수 있는 것만을 利用함에 그치고 間接的으로 밖에 推定할 수 없는 것은 간혹 質的 側面에서 論議되지만 그것을 量的 側面에서 다루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³⁾

둘째로 新經濟史研究의 特徵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測定值의 「再調整」 redirection에 있다. 하겠다. 물론 傳統의 經濟史家와 마찬가지로 無視되어 온 經濟統計資料를 찾아 내고 그것들을 단순히 分類하는 데도 相當한 精力을 기울이겠으나⁽⁴⁾ 이것은 新經濟史만의 特色

鐵工業成長에 대한 需要供給變動의 效果에 관한 研究 : Peter Temin, *Iron Steel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An Economic Inquiry*, 1964; Stanley L. Engerman and Robert W. Fogel, *The Growth of American Iron Industry, 1800—1860: A Statistical Reconstruction*.

奴隸制의 收益性에 관한 業績 : Alfred H. Conrad and John R. Meyer, *The Economics of Slavery*, 1964; Robert Evans, Jr., "The Economics of American Negro Slavery," *Aspects of Labor Economics*, H. Gregg Lewis, ed., 1962; Richard Sutch, "The Profitability of Ante-Bellum Slavery-Revisited," *Southern Economic Journal*, Apr. 1964; Yasukichi Yasuba, "The Profitability and Viability of Plantation Slavery in the United States," *Economic Studies Quarterly*, Sept., 1961; Stanley Engerman, "The Effects of Slavery upon the Southern Economy: A Review of the Recent Debates," *Explorations in Entrepreneurial History*, 2nd Ser., IV, 1967.

農業部門의 生産性增加를 가져 온 諸要因에 관한 研究 : William N. Parker, "Productivity Growth in Crop Production," in Volume 30 of *Studies in Income and Wealth*; Paul David, "The Mechanization of Reaping in the Ante-Bellum Midwest," *Industrialization in Two System: Essays in Honor of Alexander Gerschenkron*, Henry Rosovsky(ed.), 1966.

聯邦政府의 土地政策이 所得分配에 미친 效果의 初期 研究 : Allan and Margaret B. Bogue, "Profits and Frontier Land Speculator," *Journal of Economic History*, May 1957.

市場經濟創出에 대한 外國貿易의 影響에 관한 研究 : Douglass C. North, *The Economic Growth of the United States, 1790—1860*, 1961.

工業化所要資本의 源泉에 관한 初期 研究 : Lance Davis, "New England Textile Mills and the Capital Market: A Study of Industrial Borrowing 1840—1860," *Journal of Economic History*, Mar. 1960; Jeffrey G. Williamson, *American Growth and the Balance of Payments, 1820—1913*, 1964.

都市化의 解釋 : Eugene Smolensky and D. Ratajczak, "The Conception of Cities," *Explorations in Entrepreneurial History*, Winter, 1965.

經濟變動의 諸原因에 관한 研究 : Jeffrey G. Williamson, *American Growth and the Balance of Payments, 1820—1913*, 1964.

(2) Simon Kuznets, "Summary of Discussion and Postscript," *Journal of Economic History*, Dec. 1957, p. 553; Robert W. Fogel, "Discussio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4, p. 378.

(3) Robert W. Fogel, "The New Economic History: I. Its Findings and Methods," *The Economic History Review*, Dec. 1966, p. 651.

(4) 高速컴퓨터의 使用은 既存의 龐大한 資料에 단순한 算術的 操作이나 分類가 必要한 경우에 조차 새로운 可能性을 열어 놓았다. Lance E. Davis, Jonathan R.T. Hughes, and Stanley Reiter, .

은 아니다. 歷史上 어느 때인가에 存在했었지만 이제는 存在하지 않는 經濟的 測定值를 再構成(reconstruct)하는 努力이 있는 것이다. 가령 Paul David 教授가 현재 남겨져 있는 產出高, 雇傭 및 賃金統計로부터 推定하여 1870年에서 1893年 사이의 시카고에서의 資本스톡크의 成長에 관한 消失된 情報를 얻어내려는 연구가 그러한 例에 屬한다.⁽⁵⁾

셋째로 新經濟史家들은 原初的 統計資料를 再結合(recombining)하여 以前에 만들어진 資料가 없는 測定值를 얻는 問題에 關心을 기울이고 있다. 가령 Fishlow는 地域間的 交易類型을 究明하기 위하여 New Orleans에서 商業雜誌에 發表되었던 物資受取高와 輸送量을 利用한 例가 있고⁽⁶⁾ Temin은 各種燃料費와 銑鐵의 여러 類型別 價格을 參考로 하여 相異한 型의 金屬生産者들이 벌은 平均利潤率指數를 算出해 내고 있는 것이다.⁽⁷⁾

넷째로는 新經濟史家들이 測定值를 構成 또는 再構成하려는데 所期의 統計構造의 完成에 不可缺한 情報가 缺如된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흔히 所期의 計數算出에 論理上 必要한 情報를, 實際와는 距離가 있지만 測定值의 再構成에 필요한 論理體系에 近似한 數值로 代用하는 方法이 쓰여진다. 그 事例로서 Fishlow 教授는 美國北部에서 南部行의 總輸送量을 推定하기 위하여 New Orleans에 들어온 어떤 生産物의 南部保有比率에 관하여 어떤 假定을 세워야 했으며, 여기서 그는 이 商品의 滯貨率은 餘他商品의 平均滯貨率과 같다고 하는 恣意的인 假定에 立脚하고 있는 것이다.⁽⁸⁾ 그러나, 萬一 이 假定的 滯貨率이 數퍼센트만 誤差가 나도 南北間 交易量의 推定值에는 相當한 差異가 發生할 수 있음은 勿論이다.

다섯째로 지적할 수 있는 新經濟史의 研究方法上의 特色은 直接的으로는 測定이 不可能한 것을 測定하는 方法을 찾아 내는데 力點을 두고 있다는 點이다. 이 方法은 前記한 Alfred H. Conrad와 John R. Meyer가 新經濟史의 第一次의 古典이 된 그들의 論文 "The Economics of Slavery in the Ante-Bellum South"에서 利用하고 있는데, 그들은 結局 南部人들의 「態度」가 奴隸貿易의 對內擴大를 妨害했다고 하는 假設을 評價하는데 間接的인 測定方法을 使用했다. 즉, 萬一 社會的·心理的 障礙가 奴隸貿易을 效果의으로 妨害했다면 奴隸人口의 人口統計的 構造가 모든 州에서 大略 同一해야 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Aspects of Quantitative Research in Economic Histor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Dec. 1960, pp. 531-47; Harvey H. Segal and Mathew Simon, "British Foreign Capital Issues, 1890-1894," *Journal of Economic History*, Dec. 1961, pp. 566-81, 參照.

(5) Robert W. Fogel, "Discussion," *op. cit.*, p. 378.

(6) Albert Fishlow, "Antebellum Interregional Trade Reconsidered,"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4, pp. 352-364.

(7) Peter Temin, "A New Look at Hunter's Hypothesis about the Antebellum Iron Industr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4, pp. 344-351.

(8) Robert W. Fishlow, "Discussion," *op. cit.*, p. 379의 footnote 7을 參照.

그러나 人口統計資料를 보면 南部의 購入型의 州는 初期勞動年齡層에서의 奴隸人口의 比率이 賣出型의 州에서 보다 높고 賣出型의 州는 15歲未滿과 50歲以上の 年齡層에서 奴隸人口比가 더 높다는 것을 確認할 수 있었다.⁽⁹⁾

여섯째로 新經濟史의 計量的 研究作業에서는 理論이 中樞的 役割을 한다는 사실이다. 設令 어떤 研究의 中心課題가, 消失된 統計資料의 再構成에 있든, 새 測定值의 構成에 있든 또는 間接的 測定值를 얻는데 있든 간에 가장 重要한 것은 亦是 理論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선 理論은 測定의 必要가 있는 對象자체의 決定過程에 介入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理論은 直接的으로 測定할 수 없는 對象을 間接적으로 測定하려는 경우는 더욱 뚜렷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間接的 測定을 하기 위해서는 直接 測定이 可能한 것과 그것이 不可能한 것과의 사이에 어떤 體系的 關係가 있다고 想定한다. Ransom은 運河의 未實現의 利益을 測定하기 위해서 地價, 市場間의 距離, 運賃率, 輸送量 같은 直接 測定할 수 있는 要因들을 利用하여 計算해 내고 있는데⁽¹⁰⁾ 이때 可用統計資料와 Ransom이 直接 觀察하지 못한 情報과의 사이의 關聯을 說明해 주는 것은 價格理論 특히 地代理論인 것이다.

이와의 關聯에서, 新經濟史家가 理論에 依支하는 傾向은, 이들이 經濟制度·要素供給·技術 등의 變化가 經濟成長에 미치는 效果를 測定하고자 하기 때문에 더욱 促進되고 있다. 그와 같은 要素들의 成長에 미친 效果의 測定은 實際로 發生한 事件과 實在하기는 했으나 어떤 事故로 觀察 또는 記錄이 안된 채 지나쳐 버린 諸條件에 관한 測定뿐만 아니라, 發生하지도 存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觀察 및 記錄될 수 없었던 事件과 條件의 測定까지도 必要로 하게 된다. 이것이 新經濟史 研究에 있어 많은 論難을 일으킨 이른바 反事實的 條件(counterfactual condition)이다. 가령 Ransom이 水路가 없는 경우(實際는 있지만) 「오하이오運河」隣近에서 生産되는 特定商品에 의한 可能的인 收益이 얼마나 될 것인가고 물을때 이것이 바로 反事實的 條件의 한 類型인 것이다.⁽¹¹⁾ 왜냐 하면 그가 밝히

(9)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April 1958, p.114; *Journal of Economic History*, Dec. 1957, p. 539.

(10) Roger L. Ransom, "Canals and Development: A Discussion of the Issues,"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4, pp. 365-376; Robert W. Fogel, *The Union Pacific Railroad: A Case in Premature Enterprise*, 1960, Chap. 4.

(11) Robert W. Fogel, "Discussion," *op. cit.*, p. 381; J.D. Gould, "Hypothetical History," *The Economic History Review*, Second Series, Aug. 1969, pp. 195-207; Ralph L. Andreano, *The New Economic History*, 1970, pp. 75-78; Fritz Redlich, "New and Traditional Approaches of Economic History and their Interdependenc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XXV, 1965; Albert Fishlow and Robert W. Fogel, "Quantitative Economic History: An Interim Evaluation, Past Trends and Present Tendencies,"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Mar. 1971, pp. 15-17.

고자 하는 可能的 또는 代替的인 條件이란 결코 實存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條件과 關聯된 收益도 觀測(記錄) 또는 實測이 不可能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代替的 또는 可能的 收益의 測定(計算)은 假定的·演繹的 理論模型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¹²⁾

以上の說明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新經濟史研究에 있어서 가장 嶄新性있고 가장 重要的 特色은 數量的 測定을 強調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以前에 測定不可能 하다고 보여진 것들을 測定하기 위해서 理論에 依存한다는데 있다고 보겠다. 新經濟史가 理論의 活用을 通해서 統計的 再構成과 間接的 推計를 함에 成功한다면 資料制限이라는 從來의 限界가 除去되고 過去에 測定不能으로 보이던 많은 側面이 推定되며 既往에 不確定的으로 보여진 많은 문제들이 確定的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新經濟史는 最近의 經濟成長에 관한 實證的 研究에서 얻어진 經驗과 方法, 漸漸 強化되는 數理經濟學 및 計量經濟學의 分析手段, 그리고 이러한 理論模型을 그것이 着想되던 문제나 狀況과는 다른 條件의 分析에 應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諸可能性에 관한 理解의 增進 등에 의해서 그 嶄新성과 特色이 들어나는 理論的·數量的 傳統을 確立시키고 있는 것이다.

앞서도 指摘한 것처럼 傳統的 經濟史家들도 數量的 情報에 關心이 많았던 것은 周知의 事實임에 틀림 없으나, 이 數量的 情報를 「嚴格히 定義된 經濟分析의 諸概念」을 解明할 수 있는 方向으로 變換시킨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國民所得推計의 技術이 發達되면서 비로서 數量的 情報의 理論에 의한 再構成이 活用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國

(12) 經濟史에 있어서의 假設的·演繹的 模型의 役割에 관하여는 前揭한 Meyer 및 Conrad의 著述과 Fogel, *Railroads*, Chaps. I, III, VI, 參照.

여기서 한가지 代表的인 事例로서 Fogel의 鐵道에 의한 社會的 貯蓄에 관한 model을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特定年度에 있어서 社會的 貯蓄 α 는 아래와 같이 된다. 즉

$$(1) \alpha = \lambda k$$

여기서 λ 는 地域間 輸送對象에 들어 간 商品中 鐵道에 의해 運送된 商品의 噸數이고, k 는 λ 의 噸當 社會的 貯蓄이다. 萬一 k 의 決定因을 詳記하면 方程式(1)은 다음과 같이 된다. 즉

$$(2) \alpha = \lambda [W(D_{fb} - D_{fr}) + (BD_{bp} - RD_{rp})]$$

여기서

W = 噸·마일當의 平均馬車運賃率

B = 噸·마일當의 平均水路運賃率

R = 噸·마일當의 平均道路運賃率

D_{fb} = 農家에서 水路積荷場까지의 平均距離

D_{fr} = 農家에서 鐵道積荷場까지의 平均距離

D_{bp} = 水路積荷場에서 第一次市場까지의 平均距離

D_{rp} = 鐵道積荷場에서 第一次市場까지의 平均距離

方程式(2)에서 첫번째 括弧안의 값은 馬車輸送量의 減少로 인한 噸當 社會的 貯蓄이라 할 수 있고 둘째번 括弧 안의 값은 鐵도가 船舶을 증가하므로 인한 噸當 社會的 貯蓄이라 할 수 있다. (詳細히는 Fogel, *Railroads*, *ibid.*, p. 56 以下 및 p. 207 以下 參照)

民所得計定에서 俱現되는 廣汎한 統計의 再構成은 經濟史家들의 業績이 아니라 實證主義의 經濟學者들의 것이었다. 가령 美國의 Simon Kuznets, 英國의 J.R. N. Stone 과 Phyllis Deane, 佛蘭西의 Francois Perroux 와 Jean Marczewski 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겠다.⁽¹³⁾ 한편 經濟史家들은 理論家들에 의해 推計된 國民所得數值를 活用은 해도 그들 스스로가 直接 統計의 再構成作業에 着手해 가면서까지 문제의 解明을 試圖한 일은 거의 없었고, 大部分의 경우 經濟史家의 討議는 數量的 情報를 가지고도 이를 質的인 側面에서 解釋하는데 始終해 온 것이 一般的이었다고 할 수 있다.

新經濟史家들은 여기에 挑發的으로 接近하여 測定作業에 直接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며, 특히 美國經濟史를 健實한 數值的 基礎 위에 再構成하려는 高度로 野心的인 希望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 많은 障礙가 뒤따르며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難處한 문제는 亦是(統計)資料의 不足에 있다. 過去의 制度나 決定的 過程에 관한 情報가 集計되지 않았거나 또는 消失된 경우가 許多할 뿐 아니라 그러한 資料가 殘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량이 너무 龐大하거나 그 形態가 너무 粗雜하기 때문에 現代의 統計의 方法의 도움 없이는 쓸모가 적고 또 그것을 利用可能한 것으로 復舊 또는 變換하자면 莫大한 費用이 들게 되는 것이다. 그 結果 新經濟史家들은 統計學과 應用數學을 廣汎하게 活用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頻繁히 쓰이는 方法이 回歸分析(regression analysis)이다. 回歸分析은 가령 Albert Fishlow 가 南北戰爭以前期의 鐵道投資를 推定하는데 使用한 手段이었고, Jeffrey Williamson 이 都市化에 관한 研究에서 많이 利用한 것도 그것이다.⁽¹⁴⁾ Paul MacAvoy 는 穀物價格과 運賃率 사이의 相關關係를 決定하는데 回歸分析模型을 援用하고 있다. 勿論 이러한 回歸分析方法 以外的 다른 數學的 方法을 使用한 事例도 얼마든지 들 수 있는데 가령 William Whitney 는 關稅가 製造工業의 發生에 미친 效果를 測定하는데 投入產出分析(Input-Output Analysis)을 利用했고 James K. Kindahl은 두 개의 不完全한 名單에서 南北戰爭終結直後의 州立銀行總數를 推定하는데 超幾何分布法(hypergeometric distribution)을 應用하고 있는 것이다.⁽¹⁵⁾

一部分의 經濟史家 中에는 可用統計資料가 貧弱하다는 理由로 經濟史研究에 強力한 統計의 方法을 適用하는데 대하여 懷疑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13) *The Economic History Review*, Second Series, Dec. 1966, p. 650.

(14) Fishlow, *American Railroads*, *op. cit.*, Chapter 3 and Appendix B.; Jeffrey G. Williamson, "Ante-bellum Urbanization in the American Northeast," *Journal of Economic History*, Dec. 1965, pp. 592-608,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op. cit.*, p. 652.

(15)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ibid.*; James K. Kindahl, "Economic Factors in Specie Resumption: The United States, 1865-79,"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Feb. 1961.

이 關係는 흔히 逆의 경우가 많다. 資料가 充分하다면 단순한 統計的 調整으로도 족하겠지만 資料가 貧弱하다면 그럴 수록 보다 強力한 統計的 方法을 채택하여야 될 必要性이 더 커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문제는 可用資料의 量이 標準인 統計節次에 所要되는 最少限度도 未達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우 研究의 成敗를 左右하는 決定因은 이처럼 制限된 資料를 效率的으로 活用하여 解答을 얻어 낼 수 있는 方法을 考察할 수 있는 研究者의 能力如何라 하겠다.

資料不足의 문제를 克服하는데 經濟理論이 應用된 한 가지 事例를 Paul David의 機械收穫機에 관한 研究에서 찾아 볼 수 있다.⁽¹⁶⁾ 機械收穫機에 관한 문턱(閾)函數(threshold function)를 計算해 내기 위해서 回歸分析法을 利用하자면 營農規模別의 同機械使用臺數, 이 機械의 引渡價格, 그리고 平均勞賃에 관한 郡單位의 統計資料가 必要한 것인데 不幸히도 郡單位로는 그러한 情報가 없었다. 이 難點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生産理論」을 利用했다. 즉 처음에 그가 注目한 것은 農夫가 特定面積의 穀物을 收穫하는데 그 費用이 同一하다면 機械에 의한 것과 손으로 收穫하는 것 사이의 選擇에 無差別하다는 사실이었다. 다음에 그는 手動勞動者의 雇傭에는 規模의 經濟·不經濟가 없다는 點을 알았다. 두 개의 線形近似値와 더불어 이러한 사실의 確認에 의하여 媒介變數(parameter)가 세 개 뿐인 하나의 文턱函數를 導出해냈다. 그 파라미터는 減價償却率, 利子率, 그리고 收穫機와 勞動의 人當日數 사이의 代替率이었으며 이들 파라미터를 推定하는데 必要한 資料는 容易하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數量測定과 理論의 結合이 가장 明瞭하게 나타나는 것은 經濟發展過程에 미치는 技術革新이나 制度變化의 純效果를 確認하려고 할 경우이다. 그런데 發展에 대한 그러한 要因들의 純粹效果를 測定하는데는 實際로 일어난 事實과 그러한 환경條件이 缺如되었을 때 發生했었을 事實과의 사이의 比較가 必要하게 된다. 그러나 이 反事實의 條件(counterfactual condition)은 現實的으로는 發生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觀察될 수 없었고 따라서 歷史上의 文獻에 記錄되지도 않은 것이다. 이처럼 所與의 環境條件이 缺如되었을 경우 그 結果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를 推定하기 위해서는 經濟史家로 하여금 實際로 存在한 制度 및 相互關係로부터 反事實的 狀況을 演繹하게 할 수 있는 一連의 一般의 公式 즉 一連의 理論이나 模型이 必要한 것이다. 여기서 다시 理論과 計量分析의 重要性이 強調되지 않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¹⁷⁾

(16) Paul David, "The Mechanization," *op. cit.*, pp. 28-39.

(17) J.D. Gould, "Hypothetical History," *op. cit.*; R.L. Andreano, *The New Economic History*, *op. cit.*; F. Redlich, "New and Traditional Approaches...", *op. cit.*

2. 研究 成果

위에서 우리는 New Economic History의 研究方法의 主要特徵을 概觀했지만 이와 같은 研究方法이 美國에서 經濟史研究에 相當한 衝擊을 가하게 된 것은 주로 그 研究成果의 革新性에 있었다. 만일 新經濟史가 단순히 以前의 學說을 再生하는데 不過했다고 하면 그 方法 또한 陳腐함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新經濟史家들의 많은 研究가 傳統的 經濟史學에서 定立해 놓은 一部の 既成學說을 根源의으로 變更시켜 놓은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美國經濟의 發展을 說明함에 核心이 되는 諸 制度 및 過程에 관해서 지금껏 期待하지 못했던 새로운 知識의 獲得에도 적지 않은 成果를 올리고 있다. 여기서 新經濟史家들의 研究成果를 모두 把握한다는 것은 不可能하지만 그중 代表的인 몇 가지 事例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

新經濟史의 研究成果中 첫째의 가장 영향력이 컸던 分野는 「美國南部奴隸制의 經濟性」에 관한 新解釋이었다. 이는 南北戰爭以前의 美國南部의 經濟發展過程에 있어서 奴隸制度가 어떠한 效果를 발휘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¹⁸⁾

周知하는 바와 같이 비교적 最近까지 大部分의 歷史書들은 南北戰爭以前의 南部(ante-bellum South)를 plantation 制度에 억눌려 停滯되어 있는, 經濟的으로 後進農業地域이라고 描寫하여 왔다. 戰爭勃發前夜에 이르러 奴隸制는 採算性이 없어졌기 때문에 制度自體가 倒壞直前に 있었고, 그나마 이 奴隸制가 一時的으로 維持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그 特異한 社會制度에 물들어 온 階級의 因襲과 固執 때문이었다고 설명되어 왔다.⁽¹⁹⁾

이 見解는 前述한 바 있는 Alfred H. Conrad와 John R. Meyer의 論文에 의해서 銳利한 挑戰을 받게 되었다.⁽²⁰⁾ 이 兩人은 奴隸所有主의 利潤이 下落하고 있었다는 命題를 뒷받침하기 위해 通常的으로 提示되고 있는 證據의 不適合性을 지적한다. 奴隸制의 採算이 맞지 않는다는 主張은 주로 奴隸價格이 그 奴隸가 生産해내는 商品의 價格보다 더 빠른 速度로 上昇했다는 事實에 依據하고 있었다. Conrad와 Meyer는 이 兩價格 사이의 乖離가 만드니 利潤下落을 수만하지 않는 理由로서, 奴隸의 生産性이 當初의 利潤水準을 維持하기에 充分할 만큼 上昇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또 經濟的 觀點에서 奴隸는 資本財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所得흐름 중에서의 資本化에 관한 標準方程式만 풀면 奴隸에 대한 投資의 收益率을 算出해 낼 수 있으며, 이는 奴隸價格을, 奴隸使役에서

(18) Robert W. Fogel and Stanley L. Engerman(eds.), *The Reinterpretation of American Economic History*, 1967; Douglass C. North, *Growth and Welfare in the American Past: A New Economic History*, 1966.

(19) *The Economic History Review*, Second Series, Dec. 1966, p. 644.

(20) 以下는 Conrad and Meyer, *The Economics*, Chapter 3, 參照.

얻어지는 年間收入흐름의 割引된 價値와 비교해서 나오는 收益率이 된다고 論한다.

Conrad 와 Meyer 는 奴隸經濟를 두 개의 部門으로 나누어, 첫째 部門은 男子奴隸를 棉, 砂糖, 옥수수 같은 主産物의 產出量과 關聯시킨 生産函數로 표시하고, 둘째 部門은 새로운 奴隸를 產出하는데 女子奴隸가 使用되는 資本財部門이라고 보았다. 그리고서 이 兩人은 男女의 性別로 달라지는 奴隸의 收益率을 推算하기에 이르렀다. 男子奴隸의 收益計算이 더 간단했다. 우선 그들은 奴隸 1人當 平均資本費用을, 奴隸의 價格뿐만 아니라 奴隸 1人에 의해서 使用된 土地, 家畜 및 施設의 平均價値까지 포함해서 算出해 냈다. 그리고서 年間總收入의 推計는 棉花價格과 奴隸의 物理的 生産力에 관한 資料에서 算出했다. 純收入額은 總收入에서 奴隸의 維持 및 監督費用을 控除함으로써 얻었다. 그리고 純收入의 흐름의 平均期間은 死亡率統計表에 의해서 決定한다. 이와 같은 推計에 의하여 Conrad 와 Meyer 는 男子奴隸의 收益率을 計算했는데 南北戰爭以前의 大部分의 plantation 에서 收益率은 5乃至 8%이며 그것은 每人當의 物理的 收穫量과 棉花의 支配의 農場價格에 依存한다는 것을 發見하게 된 것이다. 척박한 松林의 高地帶나 東쪽 海邊의 피폐된 土地의 農家에서는 收益率의 幅이 不過 2에서 5% 사이에 있었다. 그 反面 뉴·사우드웨스트의 最良地, 미시시피의 沖積土, 良地의 사우드·캐롤라이나와 엘라베머의 plantation 에서는 10에서 13%나 되었다.⁽²¹⁾

한편 女子奴隸의 收益率計算은 좀 더 複雜했다. Conrad 와 Meyer 는 農地에서의 女子의 직접적인 生産力 뿐만 아니라 出生에서 販賣되기까지의 그녀들의 所生의 生産力과, 그리고 妊産·養育費用과 平均出生數 같은 문제까지 計算에 넣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섯 이하 또는 열 이상을 낳아서 팔릴 만큼 아이를 기른 女性은 거의 없다는 點을 確認한 然後 Conrad 와 Meyer 는 收益率에 上限과 下限이 있고 이는 各各 0.1%와 7.1%임을 計算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南部高地의 皮폐된 土地의 植民農園主들은 男子奴隸로부터 겨우 4~5% 밖에 벌지 못했지만 그 經營全般에 있어서는 다른 利潤機會에 맞먹을 만큼의 收益을 達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女子奴隸의 所生을 西部의 植民農園主들에게 팔므로써 可能했던 것이며, 이렇게 하여 그들은 所有奴隸勞動力에 대하여 4~5%의 所得率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한 奴隸去來에 관한 證據는 當時의 記錄에서 뿐만 아니라 奴隸人口의 年齡構造에서도 確認된다. 奴隸를 販賣하는 州에서 15歲以下와 50歲以上의 人口比가 대단히 큰데 반하여 이를 購入하는 州에서는 젊은 勞動年齡層의 奴隸가 支配的이었던 것이다.

(21) *The Economic History Review*, Second Series, Dec. 1966, p. 645.

Conrad 와 Meyer 의 開拓의 業績에 刺戟된 奴隸制의 經濟性에 관한 수 많은 研究중 가장 注目할 만한 것의 하나는 Yasukichi Yasuba 이다.⁽²²⁾ 그는 奴隸의 生産能力을 特定의 地域이나 職業에서 보다는 그 制度全般에서 評價하기 위해서는 奴隸로부터의 純所得의 흐름을, 그 市場價格과 比較할 것이 아니라 奴隸의 生産費 즉 純養育費와 比較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點을 지적하였다. 一定産業에서 資本財의 價格과 그 生産費 사이의 格差가 通常的으로서는 그렇게 오래 持續되는 것이 아니다. 非正常的으로 높은 利潤이 발생하면 新規의 資本財生産企業이 일어나거나 또는 既存企業이 生産擴張을 하여 이 超過利潤이 없어지기 때문에 資本財의 市場價格이 그 生産費와 같은 水準으로 下落하게 된다.

그러나 奴隸의 경우는 그 需要曲線이 供給曲線보다 더 빠른 速度로 外向移動을 하고 있다. 供給이 뒤떨어진 것은 一部는 1808年以後의 奴隸輸入에 대한 禁止令 때문이고 一部는 國內에서의 供給擴大가 生物學的 要因과 文化的 諸要因에 의해 制限되고 있던 事實에 起因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制約으로 말미암아 奴隸의 超過利潤은 相當期間동안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Yasuba 의 推計로는 1821~25年의 5個年동안 平均 736弗자리 奴隸로부터 平均 428弗에 達하는 超過利潤을 올려 그 差額이 奴隸를 成熟시키기까지의 純養育費를 나타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1821~25年間에 資本化된 超過利潤이 奴隸의 市場價格의 58%를 나타냈고, 1841~45年에는 奴隸價格의 72%, 1851~55年에는 85%를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南北戰爭에 이르기까지 40年間에 걸쳐 奴隸價格에 대한 利潤率이 크다는 것과 이것이 上昇하고 있다는 것을 立證함으로써 Yasuba 는 奴隸制度의 經濟的 採算性을 動態的으로 나타내는 成果를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Conrad 와 Meyer 가 奴隸의 生産費보다도 市場價格을 기준해서 收益計算을 했다는 것은 兩인이 奴隸制度全體의 收益을 過少評價했음을 뜻한다. 실상 그들은 奴隸를 購買하는 投資家들이 平均的으로 市場收益率의 수준밖에 벌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奴隸價格을 조정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設使 奴隸制가 採算이 맞는 經濟制度라 할지라도 그것이 貯蓄率을 減少시키거나 企業家活動을 抑壓한다면 南部의 經濟成長은 沮害될 수 있는 것이다. 歷史家들은 奴隸制로 因해서 植民農園主들이 그 所得을 분수에 넘치는 사치생활에 탕진하게 되었다는 點을 指摘해 왔다. 奴隸制는 또한 農業에 대하여 不合理한 特性을 남게 하는데도 作用한 것으로 想定되고 있다. 그 結果 植民農園主들은 製造業部門에서의 利潤機會를 喪失하고 말

(22) Yasukichi Yasuba, 'The Profitability,' *op. cit.*, pp. 60-67; D. North, *Growth and Welfare*, *op. cit.*, Chapter 7.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南北戰爭以前の 南部의 停滯論은 近者의 위와 같은 새로운 研究成果에 의하여 疑問視되게 되었다. Conrad, Meyer, Yasuba 와 其他의 學者들은, 南部가 製造業部門에의 進出에 消極적이었던 決意는 결코 어찌구니 없는 偏執性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強力히 主張한다. 이제 餘他의 利潤機會를 훨씬 超過하는 植民農園의 利潤機會에 反應을 보인다는 것은 지극히 合理的인 決意였음이 들어났다. 더구나 Richard Easterlin 에 의해서 算出된 地域別所得의 推計値는 1人當 所得成長이 南北戰爭以前の 南部에서도 年平均 1.5%로서 餘他地域에서와 마찬가지로 急速히 成長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²³⁾

19世紀의 最終 30年間과 20世紀 前半期에 南部의 發展이 遲滯된 것은 奴隸時代의 停滯性에 起因된 것이 아니라 南北戰爭으로 인한 慘禍 때문이었다. Stanley Engerman 이 指摘하는 바와 같이⁽²⁴⁾ 만일 南北戰爭以前の 成長率이 戰爭 10年 동안에도 持續되었다고 한다면 南部의 1人當 所得은 1870年에 實際로 支配하던 水準의 2倍가 되었을 것이다. 戰爭의 災害가 너무 컸기 때문에 南部가 1860年의 1人當 所得水準으로 回復되는데 약 30年 걸렸으며 南北戰爭前夜에 享有하던 1人當 國民所得水準과 같은 地位에 到達하는에는 또 60年이 걸렸다. 그러므로 奴隸制의 廢止에 관한 論議는 奴隸制度가 高度의 經濟成長率을 達成할 수 없는 制度라는 點에서 보다는 道德性和 平等原理에 관한 문제로 歸着되고 마는 것이다.

以上에서 보아 온 것처럼 奴隸制의 문제가 美國經濟史의 解釋에 있어 重大한 意義를 지니는 것이 사실이지만 美國以外에 있어서는 큰 興味를 끌지 못하는 課題이다. 유럽의 學者들에게 보다 넓은 關心之事는 技術과 生産性에 관한 새로운 研究들이므로 이를 잠깐 살펴 보기로 하자.

Arnold Toynbee 時代부터 Paul Mantoux 를 거쳐 現代에 이르기까지 經濟史家들은 特定한 機械와 生産過程에 俱顯된 技術變動을 經濟進步의 核心的 要因으로 간주해 왔다. 그 結果 모든 學徒들은 英國, 佛蘭西, 獨逸 그리고 美國에서 產業革命을 惹起시킨 것은 jenny 紡績機, 動力織機, 反射爐, 壓延機, 蒸氣機關, 鐵道와 같은 發明들이었다고 가르쳐져 왔다. 그러나 機械와 그 使用의 歷史를 밝혀주는 文獻은 적지 않은데도, 特殊한 技術革新이 生産性에 미치는 具體的 效果에 관해서 一定技術革新이 一產業全般에 擴張되어 가는 過程

(23) Richard A. Easterlin, "Regional Income Trends, 1840-1950," *American Economic History*; Seymour E. Harris(ed.), 1961, pp. 525-47; L. Engerman, "The Economic Effects of the Civil War," *Explorations in Entrepreneurial History*, Spring, 1967.

(24) Engerman, "The Economic Effects," *op. cit.*

에 관해서는 우리가 研究해야 될 문제가 아직 너무나 많다.

新經濟史家들의 많은 研究가 焦點을 집중시켜 온 것도 이러한 문제들의 解決을 위한 것이었다. 이들의 研究는 네 가지 範疇로 나누어진다. 그 첫째는 生産性的 增加를 說明하고자 하는 試圖이다. 즉 그것은 生産性增加의 原因을 여러가지 要因間에 配分하고자 하는 努力을 말하는데 이 接近方法의 代表的인 事例는 William Parker의 小麥生産에 관한 分析에서 볼 수 있다.⁽²⁵⁾ 그는 1840년과 1911년 사이에 小麥生産에서의 勞動生産성이 3倍以上 成長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生産性增加中 그는 큰 몫인 60%를 機械化에 起因시키고 17%는 生産의 地域集中에, 16%는 機械化와 地域的 再配置의 相互作用에, 나머지 7%를 其他 要因에 歸屬시킨다. 機械의 改良은 收穫作業과 收穫후의 作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Parker 教授는 收穫機와 脫穀機만으로 機械化에 의한 收益의 70%, 또는 全體 生産增加의 40%以上을 올렸다고 推計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Parker의 研究에서, 이 새 傾向의 研究成果가 從來의 經濟史文獻을 그처럼 特徵지워 온 生産設備에 適用된 技術變化의 壓倒的 重要性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잘못이다. Parker의 研究는 機械를 讚揚하려는 것이 아니라 農業部門에서 生産性 提高를 가져오는 모든 主要因들을 確認하고자 함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一定期間의 어떤 農作物에 관해서 두 가지 機械의 發達이 그 說明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새로운 研究들은 判異한 結果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Douglas North가 1600년에서 19世紀中葉 사이의 250年間に 관해서 발견한 바 있는 大洋輸送費用 50%下落에 관한 解釋에 있어서는 設備更新은 實質的으로 아무런 役割도 하지 않는다.⁽²⁶⁾ 이 輸送費下落의 거의 모든 원인이 海賊行爲의 除去와 市場規模의 增大라는 技術變動以外的 要因으로 說明되고 있다. 海賊行爲의 排除가 實質的으로 人件費를 減少시킨 것은 軍人을 이제 必要로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고, 市場規模의 增加는 剩餘商品의 中央市場集中을 자극함으로써 輸送費用을 切下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方向에서의 進展이 船舶들로 하여금 港口에서 荷物을 入手하는데 所要되는 時間을 大幅 節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음으로 둘째번의 研究領域은 特定産業의 成長을 說明하는데 集中되어 있다. 이런 類型的인 研究成果中 가장 代表的인 것의 하나는 1860년까지의 美國綿紡工業의 成長에 관한 Robert Brook Zevin의 分析이다.⁽²⁷⁾ Zevin이 指摘하드시 1816년에서 1833년에 이르기까

(25) William Parker, "Productivity Growth," *op. cit.*

(26) D.C. North, "Determinants of Productivity in Ocean Shipping," *The Reinterpretation; Fogel and Engerman, op. cit.*

(27) Robert Brook Zevin, "The Growth of Cotton Textile Production after 1815," *The Reinterpretation, ibid.*

지의 17年間은 初期 綿工業史上 가장 興味있는 期間이다. 이 期間동안에 綿織物生産이 84萬야드에서 231百萬야드로 擴大되어 280倍 以上の 增加를 보였다. 週期的 變動을 消去하여 Zevin은 生産의 年平均 成長率을 17.1%로 잡았다. 그는 이 擴張의 3分の 1은 주로 都市와 西部의 人口成長에 의해 刺戟된 需要增加에 起因되었다고 본 것이다. 나머지 3分の 2는 供給曲線의 下向移動에 起因되고 있었다. Zevin은 여기서 供給變動의 原因을 紡織機의 改良, 原棉價格의 下落, 熟鍊技術者의 成長으로 說明한다. 그러나 機械의 改善은 여러 要因中 가장 比重이 낮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것은 織物生産의 擴大에서 겨우 17%를 차지할 뿐이다. 原棉價格의 下落은 28%를 차지하고 熟鍊技術者의 成長은 殘餘의 22%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Zevin의 研究는, 다른 學者들의 그것과 綜合해 볼 때 지난 2世紀동안 유럽과 美國의 主要製造工業의 成長에 있어서 새로운 機械와 餘他形態의 施設改善이 唯一의 내지는 第一次의 要因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點을 指摘하고 있다. 機械에의 偏重은 工業成長의 促進에 있어서의 需要의 役割을 過少評價하게 만들어 왔다. 그뿐 아니라 이는 勞動의 質, 熟鍊度의 蓄積, 産業組織의 効率, 規模의 經濟 같은 供給의 諸決定因을 輕視하는 結果까지 가져 왔다는 것이다.⁽²⁸⁾

세재번의 研究領域은 技術變革의 普及에 관한 分析이다. 技術普及의 문제는 New Economic History의 가장 人氣 높은 課題의 하나가 될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Peter Temin의 無煙炭 및 코크스溶鑪의 普及에 관한 研究는 그 대표적 成果이며⁽²⁹⁾ 더 最近의 研究業績으로는 Paul David의 收穫機에 관한 論文이 有名하다.⁽³⁰⁾ 收穫機는 1830年代에 發明된 것인데도 그 普及은 20年동안이나 아주 느린 速度로 進行되었던 것이다. 이 技術革新이 一般에게 받아들여진 第1次 波動은 1850年代 中葉에 일어났는데, 이 文獻은 그 波及的 變動의 原因에 관해서 野心的인 分析을 試圖하고 있다. 여러 學者들이 小麥價格의 上昇과 農業勞動力의 稀少化를 그 要因으로 強調해 왔지만, 이러한 說明은 小麥價格의 上昇이 收穫機의 需要增加를 가져 온 過程에 관해서는 밝혀 주지 못하고 있다.

David는 여기서 萬一, 産業的 水準에서 勞動의 供給曲線이 收穫機의 供給보다 덜 彈力的이라고 한다면 小麥價格이 農業勞動의 價格을 收穫機價格에 비해서 相對적으로 높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또 收穫機는 賃貸보다는 購買되어야 했던 點을 注目하고 있다.

(28) North, *Growth and Welfare*, *op. cit.*, pp. 6-10.

(29) Peter Temin, "A New Look at Hunter's Hypothesis," *op. cit.*, pp. 344-51; Peter Temin, *Iron and Steel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op. cit.*, Chapter 3.

(30) Paul David, "The Mechanization," *op. cit.*, pp. 3-39.

이러하여 設令 農家에게 있어서 收穫機의 年間 費用이 農場規模와는 獨立的이라 하더라도 收穫機의 收穫面積(에이커)當 平均費用은 小麥의 植付面積이 增加할수록 下落하고 있었다. 이와 對照的으로 舊來의 生産方法에 의할 때는 에이커當 收穫費用은 不變이었는데 그 理由는 農家에게 있어서 勞動供給은 完全彈力的이었고 또 이 舊來의 生産方法에는 規模의 經濟가 없었기 때문이다.

위의 論議는 收穫機를 導入하기에 알맞는 農家規模를, 收穫機價格과 農業勞動賃金 사이의 比率에 關聯시켜 주는 函數의 存立을 示唆해 주고 있다. David는 이 函數의 媒介變數를 推定하여 1850年代 初期에는 收穫機와 勞動價格의 關係가, 小麥밭 面積 46 에이커 이상의 農家에서만 收穫機를 導入함이 有利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을 確認했다. 그러나 當時 農家當 小麥밭의 平均面積은 약 25 에이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50年代 中間에 와서 收穫機의 費用은 勞動價格에 比해서 下落하였던 것이다. 이 下落은 限界規模를 꼭 35 에이커로 減少시켜 놓았다. 同時에 小麥밭의 平均面積은 30 에이커로 上昇했기 때문에, 약 5年 동안에 限界農家規模와 平均現實農家規模 사이의 隔差가 75% 이상이나 縮少되었던 것이다. 1850年代 中間에 收穫機의 普及이 促進되었던 사실을 解明해 주는 것은 이 隔差의 急進的인 縮少에 있는 것이다.

技術과 生産性에 관한 네케번의 研究領域은 特定한 技術革新이 發生시킨 社會的 純收益의 評價에 대한 試論的 研究이다. 이 分野의 研究成果로서 代表的인 것은 前述한 바 있는 Robert W. Fogel의 著書 *Railroad and American Economic Growth*이다. 鐵道の 純收益이란 概念의 推計는 實際의 國民所得水準과 鐵도가 없었을 경우의 國民所得水準과의 比較值로서 얻을 수 있다. 물론 鐵도가 없었을 경우의 國民所得額은 直接的으로는 計算해 낼 수 없다. 여기에 假設的·演繹的 模型 또는 反事實의 假定을 세울 必要가 생기는 것이며 이에 立脚하여 우리는 實際로 觀察되었던 諸條件으로부터 現實적으로 發生하지 않았던 一聯의 條件을 推論해 낼 수 있는 것이다.⁽³¹⁾

Fogel은 위의 著書에서 1890년에 관한 그와 같은 模型을 세우려고 했다. 이 模型의 概念的 基礎는 鐵道の 「社會的 貯蓄」(social saving)이다. 어느 特定年度에 있어서의 社會的 貯蓄은 當該年度의 鐵도에 의한 商品輸送費用과 鐵도에 代替되는 다른 輸送手段에 의한 同一商品의 同一地域間의 輸送費用 사이의 差額이라고 規定되어 있다. 이 費用差는 眞實의 社會的 貯蓄보다 사실상 더 크게 나타난다. 勿論 鐵도가 없는 狀況의 輸送類型을 實際로 存在했던 類型에 억지로 맞춘다는 것은 代替되는 技術的 狀況에 適應하려는 社會의 自由.

(31) Fogel, *Railroads and American Economic Growth*, op. cit., Chapters, I, II, III, & VI.

에 制約을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萬一 社會가 鐵道の 缺如로 水路와 馬車로만 輸送해야 된다고 할 때 이는 生産의 地理的 分布가 輸送費用을 節約하는 方向으로 變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商品이 그를 통해 配分되는 第1次 및 第2次市場은 分明히 鐵道運送에 特有的 諸條件에 의해 影響을 받을 것이고, 鐵道가 없을 경우는 現在와는 다른 몇몇 都市가 發生할 것이며 餘他都市들의 相對的 比重이 變動될 것이다. 以上과 같은 一聯의 狀況에의 調整으로 鐵道가 없는 경우 發生할 수 있는 國民所得의 損失이 減少될 수 있을 것이다.

社會的 貯蓄을 算出하자면 두 가지의 推計가 要求되는데, 그 하나는 船舶과 馬車의 運送서비스에 대한 直接的인 支拂이며 다른 하나는 運送中の 荷物損失, 速度가 느린 運送手段을 使用할 때 發生하는 時間損失로 인한 經費, 그리고 冬季期間에 水路를 使用하지 못함으로 發生하는 經費 등과 같은 間接的인 費用의 推計이다. 船舶의 費用函數를 導出하기 위해서는 回歸分析이 利用되었다. 鐵道가 없는 경우 收納되었을 水路의 運賃率은 이 函數에 의해서 算出된 것이다. 運送서비스의 速度가 느리고 天氣의 變化로 인해서 입는 經濟的 損失은 企業으로 하여금 正常的인 時間配分類型을 維持하도록 許容하는 規模에 이르기까지 在庫를 擴張하는데 드는 費用을 推算함으로써 計量化하였다. 豫想되는 荷物損失은 保險料率에서 算出해 내고 있다.

· 操作되어야 할 資料의 量的 龐大性으로 인해서 Fogel의 研究는 農產物의 輸送에 관계되는 社會的 貯蓄에 限定하고 있다. 이 貯蓄額의 推計에서는 鐵道가 없는 狀況에의 技術的 適應의 可能性에 관한 세 가지의 相異한 假定이 設定되어 있다. 그 첫째는 社會가 1890년에 實際로 있던 運河와 陸路에만 依存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鐵道가 없는 대신 적어도 5,000 마일의 便利하고 利率이 높은 運河가 建設되어 있다는 假定이며, 셋째는 一般陸路가 改善되어 있다는 假定이다. 이들 중 첫째 假定下에 鐵道の 社會的 貯蓄은 373 弗 즉 1890年の 總國民所得의 3.1%로 推定되었다. 運河擴張과 道路改善으로 얻어지는 社會的 貯蓄은 GNP의 1.8%로 減少된다. 興味있는 것은 鐵道에 의해 이룩된 두 가지의 主要利得이 在庫減少와 馬車輸送의 減少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것들을 모두 綜合하면 社會的 貯蓄의 80%에 달하는 것이다.

이와 關聯해서 Albert Fishlow의 南北戰爭以前的 鐵道에 관한 多方面의 銳利한 分析도 1859年の 社會的 貯蓄을 推計해 냈다.⁽³²⁾ 그의 計算은 비단 農產物 뿐만 아니라 餘他的

(32) Albert Fishlow, *American Railroad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Ante-Bellum Economy*, op. cit., Chapter 2. 最近의 興味있는 論文으로는 伊太利의 경우를 다룬 Stefano Fenoaltea, "Railroads and Italian Industrial Growth, 1861-1913,"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Summer, 1972, pp. 325-351.

모든 貨物과 모든 旅客運輸를 포함하고 있다. Fishlow의 發見으로는 鐵道の 社會的 貯蓄이 약 175百萬弗 또는 GNP의 4%가 되었다. 이 중 農產物은 大略 4分の 1, 餘他貨物이 나머지의 3分の 1이 되고 旅客서비스가 나머지를 차지한다. Fishlow의 計算을 Fogel의 것과 比較할 때 前者의 計算은 鐵道가 없는 狀況에 技術的 適應이 全無한 경우를 前提한 것임을 銘心할 必要가 있다. 이 假定이 주어졌다면 이 兩人 사이의 異見調整의 幅은 相當히 좁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以上에서 우리는 New Economic History의 몇 가지 代表的인 研究成果를 例示했지만 이것이 這問의 重要한 業績을 全部 網羅한 것은 勿論 아니다. 여기서 다루지 못한 것 중에서 注目되는 業績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南部農業에 관한 Robert Gallman, 市民戰爭以前의 都市化의 決定因에 관한 Jeffrey Williamson, 19世紀 經濟成長에 있어서의 勞動의 役割에 관한 Stanley Lebergott, 黃金時代의 農業恐慌에 관한 John Bowman, 그리고 資本市場의 展開에 관한 Lance Davis 등의 研究成果가 있다.⁽³³⁾

V. New Economic History 研究方法의 問題點과 批判

여기서는 計量經濟史家들의 研究方法 및 그 實績에서 露出되고 있는 問題點들을 摘出하고 이에 관한 批判을 가할 차례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點들이 計量經濟史 또는 New Economic History의 問題點으로 指摘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 點을 中心으로 批判의 傾向을 把握해 보고자 한다. 그 첫째는 計量經濟史가 空間과 時間에 있어 過度히 좁게 問題設定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成長과 效率의 問題에 관한 關心에 비하여 分配과 公平의 問題가 無視되어 왔다는 點이고, 셋째는 計量經濟史家들이 利用하고 있는 理論的 構成概念의 幅이 또한 너무 좁다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로 이와 關聯에서 우리가 強調하고자 하는 것은, New Economic History는 非단 多部門間의 一般均衡模型과 같은 嚴密히 經濟學的인 構成概念을 利用하는데 失敗했을 뿐만 아니라, 經濟的·政治的·社會的 諸變數 사이의 相互關係를 內生化시키는 理論模型을 輕視하고 있다는 點이다.

우선 첫째로 指摘할 수 있는, 問題設定이 時間과 空間의 次元에서 편협하다는 點은 大部分의 研究가 美國經濟史의 諸問題에 集中되어 있다는 데서 容易하게 들어난다. 이 狹量性은 New Economic History의 誕生의 契機와도 關聯되고 있는데 計量史學(Cliometrics)그 自體가 美國의 產物이라는 데서 비롯된다. 즉 이것이 第2次世界大戰 후 美國에서 開花

(33) *The Economic History Review*, Second Series, Dec. 1966, p. 651.

해 온 計量經濟學과 應用經濟學의 눈부신 發展의 結果임은 周知의 事實이다. 勿論 餘他의 나라에서 經濟史研究에 이러한 變革이 相對的으로 活潑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美國의 狹量性 때문만은 아니다. 過去 餘他國家들의 經濟史는 美國인이 아닌 이들 나라의 學者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美國의 計量經濟史家들에 의해서 이 研究類型이 變化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地理的으로 좁은 限界를 가지고 計量經濟史가 연구되는 것은 一部分은 다른 나라들의 學者들이 New Economic History의 方法을 體得하는데 뒤떨어져 있다는데 연유한다. 물론 初期에 흔히 들던, 이 方法을 性急히 採用할 수 없다는 警告는 分明히 杞憂가 아니었다. 歷史에 대한 數學的 方法의 美國式冒險은 費用이 많이 드는 投機였으며 이 投機가 들어맞느냐에 대해서 懷疑를 품는데는 充分한 根據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 初期의 懷疑는 急速히 살아져 가고 있다. 특히 1965年 以後는 New Economic History의 研究成果를 中心하여 캐나다, 英國, 프랑스, 和蘭, 獨逸, 伊太利, 日本, 濠洲 및 뉴·질랜드 등의 專門誌 또는 學會에서 活潑하고 詳細한 討論課題가 登場되고 있다는 것을 看過할 수 없다. 1968年 日本 京都에서 開催된 夏季經濟學세미나의 主題가 New Economic History의 方法과 研究成果를 中心으로 展開된 바도 있거니와 이러한 趨勢는 美國以外的 少壯經濟史學者들로 하여금 自國의 經濟發展의 研究에 計量經濟學의 方法을 應用하는데 刺戟劑가 되고 있다. 美國에 오는 外國學者들의 漸漸 더 많은 數가 新經濟史分野의 大學院 또는 post-doctor 課程에서 研究할 뿐만 아니라, 많은 外國大學의 教科課程도 새 分析技術을 教授하는 方向으로 變質되어 가고 있다. 가령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의 經濟史學科도 最近 計量經濟學 方法論을 教科目에 追加시켰으며, 同時에 最近의 美國大學의 博士論文中 라틴·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및 濠洲의 문제를 다룬 計量經濟史研究論文의 比率이 相當히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다.⁽³⁴⁾

美國을 論외로 하던 計量經濟史의 方法의 適用에 가장 많은 進展을 이룩한 것은 아무래도 英國經濟史일 것이다. 이 점은 1970年 9月初 하버드大學에서 Mathematical Social Science Board가 開催한 한 會議에서도 示唆되었는데, 同會議는 19世紀의 英國經濟의 發展過程을 다루어 英國, 뉴·질랜드, 美國에서 40名의 學者들이 參席했다. 發表된 11個의 論文들이 빅토리아期の 企業家活動, 英國資本市場의 硬直性과 偏向, 英國產鐵輸出品에 대한 美國의 關稅效果, 海運業에 있어서의 新規技術의 普及문제와 같은 多樣한 論題들을 取扱하고 있었다. 한편, 유럽 大陸에 있어서도 經濟史에 대한 數理的 方法의 應用은 這間에 相當한 進展을 보이고 있다. 第5次 國際經濟史學大會에서 가장 큰 分科討論會의 하나가

(34)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March 1971, p. 32.

컴퓨터의 利用에 의한 研究에 集中되었는데, 報告論文들을 보면 프랑스, 벨지움, 伊太利, 匈牙利, 和蘭, 스웨덴 및 소련 등에서도 經濟, 人口 및 社會的 資料의 蒐集이 廣汎히 進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와 소련의 研究報告가 興味를 끌었는데⁽³⁵⁾ 前者는 數量化的 作業에 動員된 資料가 엄청났으며 後者는 資料를 단순히 分類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複雜한 分析的 試圖를 하려는 努力이 보였기 때문이다.

空間的인 幅을 넓히기보다 어려운 것이 時間的인 幅을 넓히는 일일 것이다. 지금까지 數理的 方法이 適用된 것은 주로 19世紀라는 特定時代에 限定된 感이 없지 않으며, 그것은 그 以前時代에 관한 數量的 資料의 入手가 어려운데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資料問題가 産業化以前 時代에 計量經濟學의 方法의 有用性을 排除시킬 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19, 20世紀에 10年間隔으로 수집된 統計調査에 버금할 만한 것은 勿論 없다른 치더라도 그럼에도 不拘하고, 以前의 資料中에는 아직 本格的으로 利用되지 않고 있는 重要한 資料의 寶庫가 存在한다는 것이다. 가령 프랑스와 英國의 人口史家들이 家族再構成의 문제에 관한 調査에서 보여 주드시 여러 世紀를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는 教會記錄 같은 史料는 大端히 重要한 자료가 된다. 그러한 記錄은 비단 人口資料에 限한 것이 아니다. 스페인에서는 教會記錄에서 16, 17世紀의 農業生産에 관한 統計資料를 再生시켰는데 이는 數世紀에 걸친 時系列의 構成을 許容할 만한 것이다. Alice Jones는 18世紀의 遺言檢證記錄을 利用하여 美國植民諸州의 財産規模, 그 分配內容을 再構成해 낸 바 있다. 이 밖에도 租稅記錄이나 貿易統計 등의 資料 중 遡及해서 利用할 수 있는 것이 許多하다고 評價되고 있다.⁽³⁶⁾

둘째번의 問題인 分配문제를 相對的으로 無視해 왔다는 論難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해서 計量經濟史家들이 成長과 發展의 問題를 너무 強調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成長과 發展의 問題는 經濟史學의 버릴 수 없는 遺産이다. 經濟史學이 하나의 獨立學問으로 登場하는데는 部分的으로 리카도派 및 리카도以後의 經濟學者들이 發展문제를 無視해 온데 대한 反動과 關係가 깊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 10年間 經濟史의 主流가 經濟成長의 研究를 促進해 왔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2次大戰以前까지만 해도 經濟史學의 特徵은 다른 어떤 分野보다도 이 問題에 關心의 焦點이 놓여져 있었다. 近年에 와서 오히려 經濟史家들의 發展문제에 대한 準獨占的 地位가 喪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經濟理論家들이 大端한 精力을 갖고 經濟成長의 問題에 關心을 돌렸기 때문이다. 舊來의 理論模型

(35) *Ibid.*, p.33의 footnote 27 & 28.

(36) Alice H. Jones, "Wealth Estimates for the American Middle Colonies, 1774,"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July 1970;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op. cit., p.33.

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擴大되었으며 새로운 模型들이 開發되었다. 經濟成長理論의 進展이 지난 10 餘年間に 있어서 經濟史上的 發展문제의 解明에 刮目할 만한 寄與를 했다는 데는 疑心の 餘地가 없다. 그러나 이처럼 啓發的인 研究業績의 續出에도 不拘하고, 다시 말하면 여러가지 機械的 發明들이 生産性에 미친 貢獻度を 計量化하고, 새로운 技術革新의 普及을 決定해 주는 諸要因을 밝혀 내고, 基幹産業의 擴張速度를 究明하며, 여러가지 形態의 人間資本形成의 規模와 그러한 資本形成이 經濟成長에 미치는 效果를 測定해 낼 수 많은 研究業績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아직도 겨우 수박 겉핥기의 水準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數 10 年間に 걸쳐 우리 自身과 우리의 先輩들을 괴롭혀 온 問題들의 解答을 겨우 얻기 시작하려는 마당에 經濟成長過程을 克服하려는 우리의 努力을 斷念하거나 줄이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公平分配에 관한 關心이 經濟史學에서 疎外되어 있다고 보는 것도 잘못이다. 經濟史家들은 언제나 「國民分配」이 여러 集團과 階級間에 分配되는 樣式에 대해서 關心을 가져왔다. William Ashley 가 「一般民 사이에 일어나는 새로운 關心」을 환영한 것은 어제의 일이 아닌 1899 年の 일이었고, Guy S. Callender 가 發展과 分配문제를 經濟史家の 兩大문제라고 한 것도 1913 年の 일이다.⁽³⁷⁾

그럼에도 不拘하고 分配문제의 解明이 뒤지게 된 理由는, 이에 대한 關心의 缺如때문이 아니라 문제處理上의 本來의 難點 때문이라 하겠다. 例를 들어 1859 年の 農業總生産高를 推定하기는 이의 勞資間의 配分比를 想定하기 보다는 쉽다. 즉 農業總生産高의 推定은 各種商品의 產出高에 관한 統計調查資料와 可用物價資料에 의해서 大體的인 把握이 可能한 데 반하여, 이러한 統計資料속에 農業部門의 勞動者數에 관한 情報은 貧弱한 것이며 農業資本에 관한 情報도 不完全하다. 그 結果 우리가 把握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의 要素配分比를 決定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가령 1859 年の 農業部門에서의 勞動配分比에 관한 Budd의 推計는 그 差의 幅이 70~109%나 된다.⁽³⁸⁾

最近의 研究中에는 적어도 一部の 分配문제의 分析을 進展시키기에 充分한 資料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研究作業의 大部分은 「財產分配」에 관한 문제에 集中되어 있다. 美國에서 國勢調査의 寫本明細書의 資料를 利用하여 Foust와 Wright는

(37) W.J. Ashley, *Surveys, Historic and Economic*, 1900, p.24; Guy S. Callender, "The Position of American Economic History," *American History Review*, Oct. 1913, p.88. 이 두 가지 리용은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ibid.*, p.34에서 轉載

(38) Edward C. Budd, "Factor Shares, 1850-1910," *Income and Wealth*, Vol. 24, 1960.

1850年 및 1860년에 있어서의 農業部門의 富의 分配를 檢出했으며⁽³⁹⁾ Gallman은 19世紀中の 都市地域에 關한 斷片的 標本資料에 立脚하여 全般的인 財産分配狀態를 豫備의 으로 推計해 낸바 있고, Soltow는 都市에 있어서의 富의 保有狀況에 關한 體系的 標本을 作成한 바 있다.⁽⁴⁰⁾ Alice Jones는 美國革命前夜의 財産分配狀況을 把握하기 위하여 遺言檢證記錄 같은 資料를 利用했고⁽⁴¹⁾ Henretta에 의해 밝혀진 植民地時代의 Boston에 있어서의 財産分配의 變動狀況은 租稅記錄에 依據한 것이었다.⁽⁴²⁾ 이 밖에도 Bogue夫妻와 Swierenga는 所得 및 財産分配에 對한 土地政策의 效果에 關心을 쏟았는데, 그 根據는 郡의 抵當文書記錄에 의하여 土地投機로 부터의 收入을 算出함으로써 얻어냈다.⁽⁴³⁾

생각컨대 財産分配의 경우보다 더 어려운 것은 所得分配의 變動類型을 밝히는 일일 것이다. 資料源泉이 더 乏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國勢調查資料에 의해서 農工業의 生産函數를 推計해 낸다면 要素分配比의 推計를 改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셋째번의 문제인 New Economic History의 理論模型에 關한 批判을 檢討할 차례가 되었다. 우선, 計量經濟史家들이 作業에 利用하고 있는 理論的 構成概念이 약간의 例外를 제하면 大部分 新古典派 經濟學의 部分均衡模型임을 알 수 있다. 이 現象을 說明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部分均衡模型은 相對的으로 單純하고 그 操作이 비교적 容易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模型의 媒介變數를 推定해 내는 高度의 統計의 方法이 案出되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媒介變數들이, 資料가 極히 貧弱한 경우에조차 可靠 測定될 수 있다는 點이다. 그뿐 아니라 많은 調查研究者들이 決定的 媒介變數의 上限과 下限이, 所與된 問題群의 分析에 適合할 경우는, 一般的 均衡의 문제를 部分均衡의 문제로 變換하는데 있어서도 高度의 技巧을 보여 주고 있다.⁽⁴⁴⁾

그러나, 그와 같은 一般均衡論의 解答에의 近似值만으로는 充分치 못하다는 문제가 許多히 提起된다. 計量經濟史家들이 多部門의 一般均衡모델의 構成에서 이룩된 最近의 進展을 利用함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極히 重要한 어떤 領域의 問題의 解決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事例로서, 半世紀前에 캐나다의 經濟發展의 여러 側面을 解明하기 위해서 Harold A. Innis가 作成한 輸出據點의 假說을 보자. 이 문제에 關하여 廣汎한 討

(39)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op. cit.*, p. 35.

(40) *Ibid.*, footnote 34 參照.

(41) Jones, "Wealth Estimates...", *ibid.*

(42)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op. cit.*, p. 36.

(43) A. Bogue and M.B. Bogue, "Profits and Frontier," *op. cit.*

(44)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op. cit.*, p. 36.

論이 있었음에도 1966年에 E.J. Chambers와 D.F. Gordon의 論文⁽⁴⁵⁾이 發表되기까지 輸出이 캐나다 經濟의 成長에 미친 效果를 測定하려는 本格的인 試圖가 全無했던 것이다. Innis의 主題를 檢證하기 위해서 이 兩人은 캐나다 經濟의 3個部門模型을 만들어 이를 1900—1911年의 10年間の 資料에 適用하였다. 그들은 이 10年동안 캐나다의 小麥에 대한 國際需要가 顯隔히 增加한 것이 캐나다의 1人當 所得의 增加에 影響을 미쳤는데 그것이 주로 農地의 賃貸價格上昇과 關稅收入의 增加를 通해서 實現되었다고 主張한다. Chambers와 Gordon의 計算에 의하면 1900~1911年의 1人當 所得成長의 10%는 캐나다 小麥의 需要增加로 因한 것이었다. 이 數値는 Richard E. Cares에 의해서 疑問이 提起되었는데⁽⁴⁶⁾ 그는 새移民에 의한 勞動力參與率의 增加, 高率貯蓄, 規模效果 등과 같은 要因들을 감안하여 實成長率의 21%가 小麥봄에 의한 것이라고 推定했다. 이 修正은 Cares가 指摘하는 것처럼 Chambers-Gordon 모델의 用途를 否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델을 精密化하고 擴大하려는 것이다.

이밖에도 一般均衡模型의 利用에 뒤집으로 말미암아 分配문제의 進展에도 障礙가 되고 있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오랫동안 認定되어 왔고 또는 적어도 假定되어 온 바와 같이 生産技術, 資源賦存狀態, 關稅 등의 變動은 美國의 所得 및 財產의 分配面에 相當한 影響을 미쳐 왔다. 그러나 이러한 成長의 諸문제가 部分均衡分析의 테두리 안에서 檢討될 때는 分配面의 效果는 보통 「餘의 條件이 同一하다면」이라는 但書속에 處理되고 마는 것이다. 最近 두 개의 論文이 過去 수 10年間 經濟史家들의 興味를 끌어 온 分配문제의 解明을 加速化시킴에 도움이 되었는데 그 하나는 Clayne Pope에 의한, 南北戰以前에 諸階級 및 地域間的 所得 및 財產分配에 미친 關稅의 效果에 관한 研究이다.⁽⁴⁷⁾ 複雜한 相互作用을 밝히기 위해 三部門模型을 利用함으로써 Pope는 이 論點의 해결에 필요한 相當量의 事實의 情報과, 關聯되는 媒介變數의 推定에 있어서의 誤差에 대한 感度를 밝혀 냈다. 그의 豫備的 發見에 의하면 關稅에 의해 損失을 본 것은 南部가 아니라 北部이며 그로부터 得을 본 것은 東北部가 아니라 南部였다. 둘째번으로 Peter Passel과 Marie Schmundt의 論文은 西部의 土地解放이 東部製造工業의 資金과 利潤에 미친 影響을 다루고 있다.⁽⁴⁸⁾ 끝으로, 우리가 注意해야 될 넷째번의 문제점은 이처럼 標準的인 經濟模型을 利用함에

(45) "Primary Products and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Measure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Aug. 1966, pp. 315—32.

(46)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op. cit., p. 37.

(47) *Ibid.*

(48) *Ibid.*, p. 38.

더욱 大膽해야 될 뿐만 아니라, 經濟·社會·政治的 諸變數의 相互作用을 內生化한 模型도 必要하다는 사실이다. 이 點에 있어서 興味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가장 우수한 計量歷史學者들의 業績中 一部가, 政治的 決定이 美國經濟의 發展에 미친 效果를 論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政府補助金이 鐵道에 미친 영향, 航海條例의 負擔, 聯邦政府의 土地政策의 能率과 平準化效果, 奴隸에 의한 勞動組織制度의 經濟的 歸結에 관한 問題群 같은 것이 그렇다. 그런데 지금까지 無視되어 온 것이 그 逆의 因果關係를 다룬 문제 즉 經濟的 變數가 政治·社會的 行爲에 미치는 效果, 특히 經濟生活에 대하여 加一層의 反映을 일으킬 可能性이 큰 形態의 政治·社會的 行爲에 미치는 效果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計量經濟史家들이 19世紀 70年代 以後의 美國 農業의 不況을 促進한 經濟的 諸要因이나 美國革命을 刺戟시킨 經濟的 諸要因의 役割 같은 論點을 다룰 수 있는 것이고 또 應當 다루어야 된다고 믿는다.

經濟的 諸要因을 社會的 過程과 關聯시키는데 가장 成功的인 分野는 생각컨대 人口史部門일 것이다. 國際間과 地域間 移民에 있어서 1人當 所得, 距離 및 情報 등의 差가 미치는 效果에 관한 研究라든지 그러한 移民이 經濟成長過程에 미치는 結果의 研究와 같은 重要한 業績이 많이 나왔다.⁽⁴⁹⁾ 그뿐 아니라 經濟諸要因이 産兒類型과 死亡率에 미치는 效果에 관한 몇 가지 重要한 研究도 있다.⁽⁵⁰⁾ 그러나 計量經濟史家들에게 人口史는 아직도 開拓의 餘地가 많은 分野라고 믿는다. 가령 西漸運動과, 19世紀의 農村에서 都市로의 人口移動에 관해서조차 解明은 커녕 適切한 叙述조차 제대로 안되어 있는 형편이다. 人口經濟學에서의 이렇저러한 論議는 最近 새로운 資料源泉의 開發과 人口模型構成의 새로운 發達로 크게 進展될 可能性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封鎖된 人口의 成長을 다루기 위해 開發된 安定的 人口模型은 奴隸의 經濟性에 관한 論爭에 의해서 提起된 人口學的 諸문제의 檢討에 適合할 것 같다.⁽⁵¹⁾

以上の 論議에도 不拘하고 計量經濟史家에게 가장 큰 挑戰은 그를 통해 經濟行爲가 進行되는 制度의 確立에 대한 經濟的·政治的·社會的 諸要因間의 相互作用의 決定過程에 관한 문제이다. 이 挑戰에 對應을 試圖한 세 가지 論文이 注目을 끌고 있다. 우선 Evsey D. Domar 은 奴隸 및 農奴制度가 發生되는 第1次的 要因이 勞動供給에 비해 土地가 過

(49) Larry A. Sjaastad, "The Costs and Returns of Human Migration,"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Oct. 1962, pp.80-93; Allen C. Kelly,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conomic Growth, Australia: 1865-1935,"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Sept. 1964, pp.333-54; Richard A. Easterlin, "Influences in European Overseas Emigrations before World War I,"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April 1961, pp.331-51.

(50) Warren Sanderson, "The Fertility of American Woman Since 1920,"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March 1970, pp.271-72.

(51)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March 1971, *op. cit.*, p.39.

多한데 있었다고 하는 假說을 復活시켜 이를 精密化했다.⁽⁵²⁾ 이 見解로는 奴隸와 農奴는 行政階級 또는 支配階級이 生産者層을 生存水準 또는 準生存水準에 維持함에 必要한 것을 超過하는 剩餘生産物을 着服하는 手段이었다는 것이다. 勿論 他人의 勞動에 대한 所有權을 創出하는 것만이 生活必須品의 生産에서 斷切된 階級을 扶養하는 唯一한 方法은 아니다. 近代의 大型政府官僚組織은 市場에 依存하지 않을 뿐더러 他人의 勞動의 所有에도 依存하지 않고도 그 活動에 要하는 資金을 供給한다. 물론 商品 및 去來에 대한 課稅는 그 自體가 隸屬化이고 現代版 奴隸制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므로 解答되어야 할 疑問은 어째서 러시아 같은 一部社會에서 農奴制라 불리는 租稅形態가 다른 類型의 租稅보다 支配의 形으로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Domar은 러시아의 경우는 移住民들이 通常의인 租稅徵收를 攪亂시키기 때문이었다고 하고 있으나 폴란드, 西유럽 및 美國의 경우에는 이 點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注目を 받고 있는 둘째번의 論文은 Lance Davis와 Douglass North에 의한 것인데 이들은 美國의 發展을 說明하는데 쓰이는 制度變動의 一般理論을 提示하려고 한다.⁽⁵³⁾ 이 兩人에 의하면 制度裝置의 變化는 利潤極大化試圖의 結果라고 한다. 制度上의 革新을 통한 利潤獲得의 機會는 需要曲線의 外生的 移動, 새로운 技術革新을 構想하거나 實現하는 費用의 變動, 또는 特定集團의 政治의 力量의 變化 등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와 같은 技術革新을 操縱하는 集團은 規模의 經濟를 利用하고 外生的 要因을 內生化하며 危險을 줄이고 市場의 失敗를 是正하며 所得을 再配分함으로써 그 利潤을 獲得하는 것이다. Davis와 North는 그들의 理論이 革新의 形態와, 不均衡의 創出에서 새 制度의 確立에 이르기까지의 過渡期間의 길이와를 豫測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豫測의 基準이 操作可能의 것이 될 수 있는가의 與否는 分明치 않다. 더구나 그들의 模型은 實際로는 한번도 檢證된 바가 없고 그들은 겨우 自己들의 一般化試圖에 大體로 들어 맞는 몇가지 경우만을 引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注目되고 있는 셋째번의 論文은 Douglas North와 Robert Thomas의 研究인데 가장 野心的이다.⁽⁵⁴⁾ 이들은 制度變革과 財產權의 變化를 西歐世界의 成長理論 속에 編入

(52) Evsey D. Domar, "The Causes of Slavery or Serfdom: A Hypothesis,"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March 1970, *op. cit.*, pp. 18-32; Peter Temin, "General-Equilibrium Models in Economic History,"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March 1971, *op. cit.*, pp. 58-75.

(53) Lance Davis and D.C. North, "Institutional Change and American Economic Growth: A First Step Towards a Theory of Institutional Change,"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March 1970, *op. cit.*, pp. 131-75.

(54) D.C. North and R.P. Thomas, "An Economic Theory of the Growth of the Western World," *Economic History Review*, April 1970, pp. 1-17.

시키려고 한다. 基本的으로 위의 두 論文에서와 同一한 分析的 範疇를 使用하면서 North와 Thomas는 특히 封建制度의 衰退와 土地엔클로저는 土地에 대한 勞働比率의 上昇에 起因한 것이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위의 세 論文은 두 가지의 共通된 難點을 가지고 있다. 우선 制度變革으로 인한 特別한 利潤機會가 變化를 惹起시키기는 하지만 一般的으로 이 誘因에 대해서는 可能的 反應이 이 以外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點이다. 세 論文中 하나도 社會가 實際로 택하는 解決方案이 어찌서 다른 것에 優先해서 選擇되었는가의 理由를 신빙할 만큼 立證해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문제는 이들 理論이 冷徹한 數量的 檢證에 適合하도록 構成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들 模型을 바라건대는 數學的 形式으로 더 明確히 定立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 세 論文들에 의해 提起된 論點의 分析에 必要한 模型은 수 많은 變數와 方程式을 다루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들 方程式은 아직도 조금 밖에 理解되지 못하고 있는 經濟的·社會的·政治的 相互關係의 確定을 必要로 할 것이다.

VI. 結 論

本 論文中에서 筆者는 New Economic History가 誕生하게 된 背景과 그 問題意識에서 出發하여, 在來의 傳統的 經濟史研究方法이 갖는 諸問題點을 指摘했고, 新經濟史方法의 學說史的 回顧를 해 본 다음, 이의 研究方法과 이 세 方法을 驅使해서 찾아 낸 研究成果를 몇 가지 紹介했으며, 끝으로 이러한 研究方法이 갖는 問題點 또는 그 批判을 事例中心으로 훑어 보았다.

이 論文의 趣旨가 本來 經濟史研究의 새로운 方法論으로서의 New Economic History의 接近方法을 整理해 보자는데 있었고 이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는 新經濟史 研究方法의 問題意識, 傳統의 方法과의 差異, 그 學說史, 그 革新性, 研究成果 그리고 이의 問題點을 밝혀 온 셈이지만 그 全體를 통하여 新經濟史의 가장 特異한 性格은 理論模型의 重視나 數理·統計의 資料處理에도 있겠으나, 이 보다 더 注目되고 論難의 對象이 되고 있는 것은 亦是「反事實的」(counterfactual)條件을 設定하는 方法에 대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몇 가지 論點을 檢討함으로써 結論에 대할까 한다.

前述한 바도 있거니와 Fritz Redlich에 의하면⁽⁵⁵⁾ 反事實的 條件이야말로 新經濟史의 가

(55) Fritz Redlich, "New' and Traditional Approaches," *op. cit.*; Fritz Redlich, "Potentiality and Pitfalls in Economic History," *The New Economic History*; R. Andreano, *op. cit.*, pp. 85-99..

장 革新的이면서도 가장 疑問이 많은 方法論上的 側面이다. Redlich 教授는 反事實의 命題는 經濟史에 根本적으로 相容이 不可能한 것이라고 主張한다. 그는 또 이것은 檢證이 不可能하고 그렇기 때문에 「似而非歷史」라고 批判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出發點을 「虛構」(figment)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보다 通常의인 歷史의 因果分析方法인 「假說」(hypothesis)과 根本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假說의 接近方法은 Redlich 는, 처음에 假定을 세우고 그 다음에 眞正한 說明의 根據로 轉換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假說을 檢證하는 것인데 반하여, 反事實의 接近方法은 처음부터 虛構 또는 事實이 아닌 어떤 것을 그 出發點으로 삼고 있다고 본다.⁽⁵⁶⁾

그러나, 萬一 우리가 歷史로부터 反事實의 命題에 立脚한 研究方法을 모두 除去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비단 新經濟史家들의 業績뿐만 아니라 在來經濟史家들의 많은 研究成果까지도 삭제해야 될 판이다.⁽⁵⁷⁾ 舊經濟史와 新經濟史의 差異는 反事實의 命題를 使用하는 頻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命題를 明示적으로 使用했느냐의 差異에 있다. 傳統的 經濟史는 僞裝된 反事實의 主張으로 充滿되어 있는 셈이다. 이러한 反事實의 主張은 가령 關稅가 製造業의 成長을 促進했다고 斷言 또는 否定하는 討論, 奴隸制가 南部發展을 阻害했다고 主張하는 論文, 自作農場法이 土地分配을 더 公平하게 했는지에 관한 論難, 鐵道가 地域間去來를 擴大했다는 論爭과, 法律的·社會的·技術的·行政的·政治的인 變革이 經濟活動의 變動原因이 되는 그 밖의 모든 討論에서 들어난다. 이러한 主張들은 모두 國家의 實際狀態와 그러한 特定狀況이 缺如되었을 경우 支配될 可能的 狀態와의 暗默理의 比較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보면 新經濟史家들의 主된 課業은 새로운 反事實의 命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傳統的 經濟史에서 찾아 볼 수 있는 既存의 反事實의 命題를 明示하고 이를 檢證하는데 주된 課業이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⁵⁸⁾

그런데 反事實의 命題는 단순히 假定的·演繹의 模型으로부터의 推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命題들은 적어도 두 가지 方法으로 實證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 첫째는 提示된 命題가 그 前提로부터 論理的으로 妥當이 되느냐의 與否를 決定하는 일이며, 둘째는 그 模型의 假定들이 實證되느냐의 與否를 決定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新經濟史에 의해서 修正된 見解의 大部分은 推論의 妥當성에 관한 이 두 가지 條件中의 하나 또는 兩者가 들어 맞지 않음을 立證함으로써 밝혀진 것들이다.⁽⁵⁹⁾ 前記한 바와 같이 Conrad 와 Meyer

(56) Redlich, *ibid.* 以外에 Gould, "Hypothetical History," *op. cit.*, pp. 185-207.

(57) *The Economic History Review*, Second Series, Dec. 1966, *op. cit.*, p. 655.

(58) *Ibid.*

(59) 가령 Fogel., *Railroads*, *op. cit.*, pp. 176-189.

가 奴隸制가 消滅되고 있었다는 Phillip의 命題를 뒤집어 엮은 것은, 奴隸의 成長率과 棉花價格間의 乖離가 利潤減少를 가져 온다는 잘못된 假定에 立脚한 結論이었음을 立證함으로써 可能했던 것이다. 한편 Fogel은 鐵道가 地方에서 特定企業을 壓殺할 만한 勢力을 갖고 있었다는 證據를 가지고 總體經濟에 대한 鐵道の 必須不可缺性을 主張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밝혀 보고자 했던 것이다.⁽⁶⁰⁾

이렇게 보면 新經濟史의 方法論에서 基本的 特徵은 過去의 經濟發展에 관한 모든 說明을 妥當性 있는 假說的·演繹的 模型의 形態속에 投影해 보려는 試圖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新經濟史를 研究하는 새로운 世代가 이미 그들의 舞臺登場以前에 일찌기 進行되고 있던 努力, 즉 經濟史를 科學的 方法에 基礎하여 確立하려는 努力을 繼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萬一 新經濟史家들이 이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一部는 그들이 先行者들로부터 繼承받은 바 때문일 것이며, 一部는 그들이 經濟理論과 統計學 및 應用數學上의 重要한 發展成果의 受惠者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副教授 }

(60) *The Economic History Review*, op. cit., p. 656.